

싸베빌라



싸비빌라

HOT ISSUE

띰잔(Thingyn)

넬서리, 아띠클럽 잠시,

물 채찍. 물 폭탄 맞은 사연

양곤팀 새 멤버 영입!

화제의 기타교실2

산 스테이트 기행기

싸베빌라

CONTENTS

4월 일정 ●

활동 보고 ●

우리들의 이모저모 ●

개인 에세이 ●

싸베빌라[미얀마어: 밥먹었어?]

라운아띠 15기 미얀마, 양곤팀
허성주 이난희 박은정 송진우

4 월 일정

SUN	MON	THE	WED	THE	FRI	SAT
					1 양곤Y 널서리	2 Atti Club
3 rest	4 rest	5 마 오 글라바 널서리	6 흘 랑 따야 널서리	7 쉐비따 사랑방	8 양곤Y 널서리	9 음식 재료 장보기
10	11	12 13 14 “Thingyn” 띤잔, Water Festival/11-20			15	16 진우생일 & 세월호 2주기
17	18	19	20	21 짐싸기	22 결혼식 준비	23 결혼식
24	25	26	27	28	29	30
Yangon YMCA, Youth Program (Work Camp) 23-28 April. 2016.					베이네빈 마을살이 ...5월에 계속	

활동보고

널서리

땀잔

라운 점심시간

양곤ymca' Work Camp

널서리

4월 한 달에는 약 2주간의 띠잔기간이 있었고,
띠잔이 끝나고 꺾로에 위치한 빼이네빈에서 한 달 동안 홈
스테이를 가는 것으로 산드라 간사님과 회의 끝에 결정
했다. 그렇다보니 당분간 아니 좀 긴 시간 동안
널서리 활동은 가지 못하게 될 터였다.

은정단원: 널서리에 가지 못하게 될텐데..
그럼 뭔가 마지막으로 할 것이 없을까?
우리가 수업했던 신체스케치북과, 색깔 스케치북을
널서리에 전해주고 가자!

진우단원: 이번주는 그럼 재미있게 인형 탈을 만들어 보자

은정단원과, 진우단원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는 그렇게...

사흘간의 고된 노동을 동반하게 되었다.

널서리



704호는 미얀마의 더위와
우리의 열정이 합해져
짐통과도 같은 더위를
동반했고
그 속에서 자르고 또 자르고,
그리고 또 그리기를
반복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힘듦과 아이들의
만족도는 비례할 테니깐..

애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넬서리

마오글라바, 흘랑따야, 양곤Y 넬서리에
각각 영어, 미얀마어, 한국어가 적힌 신체와 색깔 스케치북
을 서야마께 전해주었고,
마오글라바와 쉐삐따, 양곤Y 넬서리에서 인형탈 수업을,
흘랑따야에서는 페이스페인트 활동을 했다.

결과는... 대 성공!

그간의 노동을 보상받기라도 하는 듯 정말 뿌듯한 시간이었다.



널서리



수업 사진과 아이들의 귀여운 사진 대 방출!



널 서 리

잠시 떠나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언가 마음이 무거웠다. 특히나 학교가 쉬고, 서야마들이 계시지 않는 쉼베따에서 마지막으로 떠날 때에는 더더욱..

그리곤 잠시 고민에 빠졌었다. 지금 한 달가량 떨어져 있는 것도 이런데 3달 후에 정말 한국에 가면은 어찌지?..

그때 후회 하지 않으려면 한번이라도 더 술래잡기를 해야 겠다는 다짐을 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ㅎㅎㅎ 미리 헤어짐을 연습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머리로 망치를 두드려 맞는 것처럼 자극을 주는 것 같다.

하루하루 사랑을 하라고





쉐더곤 퍼고다

띤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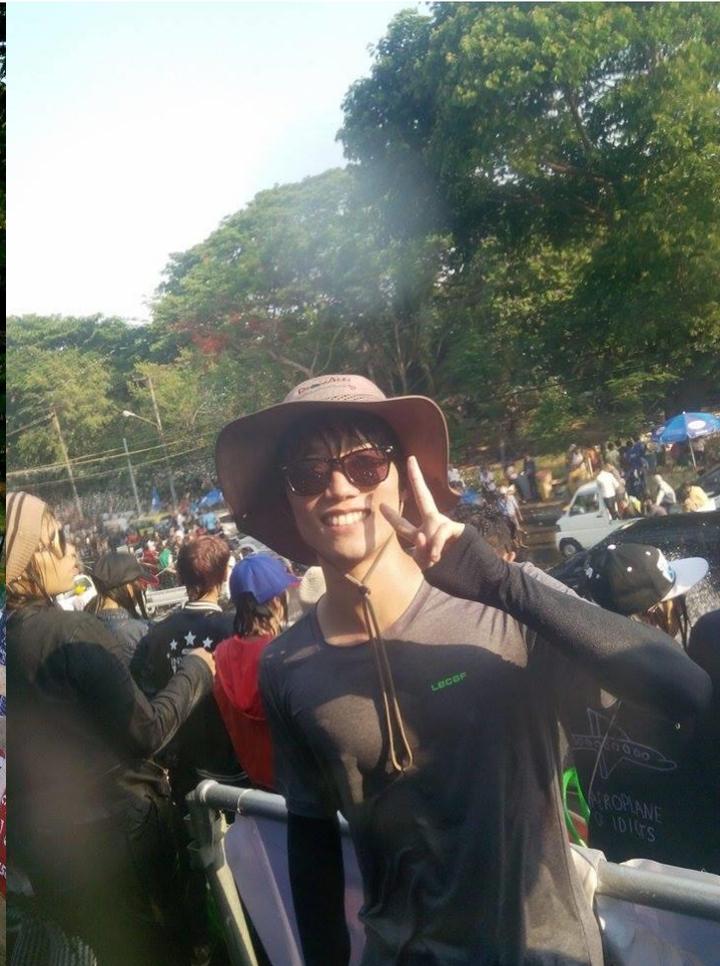
미얀마에는 '띤잔' 이라는 물 출제가 있다. 아니, 아무한테나 '물 뿌리고 물 맞는 축제'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다. 축제가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띤잔 조심해라 물 정말 많이 맞을거다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그래도 이 축제하나 덕분에 달력에는 무려 2주정도나 되는 빨간색 숫자들이 있었기에 다른 건 전혀 걱정 되지 않았다. 드디어 띤잔의 첫날. 호기롭게 YMCA 입구를 나온 우리는 곧바로 앞집 꼬마 아이에게 물바가지를 맞았다.

거리 곳곳에는 수십 개의 물 호스가 연결 되어있는 커다란 스테이지가 세워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뿌리고 맞으며 실새 없이 얼굴로 흐르는 물과 함께 술도 마시고 춤추고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뿐이었다면 그곳을 피해가면 됐겠지. 스테이지를 피해가고 있노라면 이번엔 거리의 집집마다 밖에 커다란 물 양동이를 가져다 놓고 우리는 반겨주었다. 길을 가다 하늘에서 갑자기 물이 떨어질 때도 많았고, 빠르게 지나가는 차에서 차가운 얼음물 세례를 맞아 그 차를 쳐다보면 어느새 저 멀리 앞서나가 뒤를 돌아 나를 보며 여유로운 웃음을 짓는 어떤 이름 모를 사람까지.

그렇다. 사각지대란 없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다.
뿌릴 테면 뿌려봐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지 뭐

사실 이 축제에 대해 조금만 알아보고 나면 이 사람들이 왜 이토록 열광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 축제 기간은 5일인데 이 축제가 끝난 다음 날이 바로 미얀마의 1월 1일 새해 첫날이다. 그렇기에 한 해를 마무리 하며 나쁜 것들을 물로 씻어내며 새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같다.

마치 영화 '퍼지'에서 모든 범죄가 허용되는 날처럼,
찢잔 기간 동안은 그 누구도 물 맞는 것에 있어서 얼굴 찌뿌리지 않고 웃음으로 반겨준다.



축제 2,3일 차에 우리는 Y스텝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양곤 이곳 저곳을 누비며 열심히 물 맞고 다녔다. 다른 사람들도 적게는 5명, 많게는 20명 가까이 모여서 트럭을 렌트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지 거리에 온통 트럭뿐이었다.

4,5일 차에는 우리도 스테이지에 올라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실새 없이 물을 뿌렸고, 조금의 알코올과 함께 신나게 춤도 추었다.

물 때문에 카메라로 많은 사진을 남길 순 없었지만(내 사진뿐이지만), 물 덕분에 즐겁고 행복했던 5일이었다. 한국에서는 느껴볼 수 없었던 경험이었기에 그 때 그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잊혀지질 않는다.



라운점심시간

라운점심시간(한국음식체험):

산드라 간사님과 회의록을 통해 긴 시간 기간을 활동해 양곤ymca의 많은 직원 분들을 위해 5일 동안 하루 한 끼, 점심식사를 한국음식으로 준비해보기로 결정.



일단, 이게 우리 주방△△△

조건: 가스 불은 당연히 없고, 숯으로 불을 피워 요리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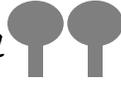
환풍기 없이 더위를 온 몸으로 체감.

식당 위치는 엘리베이터 없는 옛 건물의 4층.

매일 아침 7시 반, 혹은 8시에 당일 재료 장을 본다.

주방 멤버구성: 셰프는 눈눈튀이모, 요리사 셋(성주, 난희, 진우), 보조(은정)

Day 1 만두감자계란국



우리 예상과는 달리, 다들 만두의 식감을 별로 안 좋아했다...

산드라 간사님이 몇 번이나 여기 사람들을 엄청 많이 먹는다고 양 조절을 잘 하라 하셨는데, 우리 넷 다 손이 큰 건 모르시고 한 말씀인가보다. 만두국은 많이 남았고 우리 다음메뉴와 양 조절에 더 신경하기로 했다.



Day 2 고추장 삼겹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메뉴 아닌가.

다행히 고추장 양념을 다 좋아했고, 우리도 진짜 잘 먹었다.

그러나, 또 작은 반전은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안 먹는 직원들이 더러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고기요리를 할 경우 모두가 먹을 수 있는 닭고기를 하기로.



Day 3 비빔국수와 야채볶음밥



미얀마 쌀은 한국 쌀과 달리, 가볍고 살짝 날리는 밥이라서 볶기에 아주 좋다. 터민쫄(볶음밥)대성공!

그런데, 비빔국수가 양념은 진짜 사이다까지 넣고 맛을 딱 냈는데, 면을 잘못 골랐다. 소면 느낌이 아니라 두껍고 뻑뻑한 면으로.

국수가 메인이고, 국수로는 배가 안 찰까봐 볶음밥 한건데, 주객전도. 비빔국수는 양도 많았는데 저녁까지 엄청 남아있었다고 한다.

Day 4 콜라찜닭 🍴🍴🍴🍴

쉽고 맛있는 요리를 찾다가
나온 참신한 메뉴.

주방 주인이신 눈눈튀이이모는 우리가 콜라
두 통을 가지고 올라갈 때부터, 눈길을 떼
지 않으셨다;;

눈치보다 콜라 투척,

콜라 냄새와 콜라가 다 사라질 때까지 펄펄 끓였고, 결과는 아주 좋았다.
우리가 콜라로 요리한 게 소문나서 다들 슬금슬금 왔지만, 맛있게 잘 먹었다.



Day 5 닭볶음탕 🍴🍴🍴🍴

어제 반응이 좋아서 닭 요리로 마
무리하기로 함.

매콤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
아서 다행히, 마지막 날 요리도 대
성공!



Day 6 매일 평균 23명씩, 5일치의 요리를 하기 위해
장을 보는 것도, 음식 양 조절도, 재료비 예산도 다 우리 몫이었는데,
예산이 조금 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맛이 있던 없던 5일 동안 잘 참고 먹어주심에 감사인사도 드
릴 겸, 홈스테이 가기 전 직원 분들과 인사도 나눌 겸 **마무리로 시원한
과일화채를 돌리기로 결정!**



맛있겠쥬??

이렇게 해서 5일 +1일 동안의 라운점심시간도,
미얀마의 락산 기간도 모두 끝이 났다.



머베데부(안 끝났지요.)

라온점심시간을 마치며, **한 줄 소감**

은정” 나 빼고 다 요리를 잘해서, 비교적 쉬운 일들만 주로 해서ㅎㅎㅎ 다들 더운 날 요리한다고 고생했어~

난희” 다른 사람이 해준 음식에 굳말 없이 감사히 먹어야겠다. ^^



성주” 한국에선 이렇게 요리해 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진우” 더웠는데 요리하느라 더 더웠다.



드게 베비(진짜 끔읏).^o^

지금까지 기록과 글, 사진에 박은정 단원이었습니다. 



누구 생각해 ?

양곤YMCA' Work Camp



여름 청년 캠프

#1_JINWOO

양곤YMCA에서 주최하는 '여름 청년 캠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행운과 같았다.

베이네빈이란 작은 마을, 전기가 통하지 않아 태양열 발전기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산골 오지로 이동하는 동시에 이곳 주변의 여러 관광지까지 더불어 둘러볼 수 있었기 때문. 관광으로 유명한 인레 호수 그리고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동굴과 그 속에 잠들어 있던 파고다는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이 외에 흥미로웠던 것은 환경 관련 토의와 발표를 했던 시간. 캠프에 참여한 친구들은 각 조별로 나뉘어 환경과 관련해 정치, 사회,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 결과가 한국 대학생들이 내놓는 방안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 정치는 부패 척결, 사회는 발전과 보존의 균형성을, 교육은 균등한 기회와 질적 향상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분명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한국과 미얀마란 두 나라인데, 그 속에서 청년들이 환경과 관련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게 아이러니했다.

사실 미얀마란 나라, 고개만 돌리면 나무와 자연이 광활하게 펼쳐지는 이곳에서 나무 몇 그루 베어진 장면을 보고 환경을 걱정하는 게 기우처럼 느껴져 우스웠다. 제대로 된 고민과 실천을 해야 하는 건 다른 나라인 게 분명하니까. 그럼에도 한편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도 있단 자체에 괜히 기분이 좋았고 뿌듯했다.

여름 청년 캠프

#2_NANHEE

30여명의 대학생들과 10명의 Y직원들, 그리고 우리 4명은 샨 스테이트 지역으로 여름 캠프를 23일부터 28일까지 총 5박 6일의 일정으로 다녀왔다.

사실 캠프를 가기 전 산드라 간사님께서 서로 다른 종교(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를 가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Youth 캠프라고 이야기 하셨을 때 조금 놀라기도 했다. 이전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터미널에 집결했고, 서로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하고 안면을 트기도 전에 버스에 올라 장장 12시간을 이동했다. 꿈쩍도 하지 못한 채 비몽사몽으로..



천근만근인 몸으로 덜컥거리는 버스를 내리고 난 뒤의 일정은 인레호수 탐방이었다.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조그마한 배를 타고 다큐멘터리에서 보았을 법한 호수를 지나도 또 지났다. 푸른 하늘은 끝이 없었고, 그곳에서 새들은 정말 활활 날아다녔다. 하늘과 호수 사이가 무척 가까운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수상가옥으로 마을을 이룬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5박 6일의 일정을 하나하나 다 소개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불교,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 각각의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알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열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각자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이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종교는 사람들의 가치관, 신념과도 연결된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더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다른 한가지는 고대 바간 시대의 동굴을 가본 것이다. 사실 동굴이 좋았다기 보다는 그곳까지 가는 길이 인상 깊었다. 애초에 30분 거리의 산길을 산책하는 수준인줄 알았다. 모두가... 그런데 실제로는 6km의 대장정 이었던 것이다. 산 길이라 함은 주위에 나무들이 우거져 그들이 뻑뻑해야 하는데 정말이지 온통 태양이 바로 내리쬐는 흙 밭, 돌 밭이었다. 게다가 엄청난 각도의 내리막길까지.. 땀은 걸잡을 수 없이 내리고 다시 되돌아 가기에 늘어버려서 그저 묵묵히 걷는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 물도 다 떨어져 누군가 어디에서 떠온지도 모를, 온갖 침전물이 가득한 황톳빛의 물도 마셨더랬다.



그 날 깨달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길을 가는데 있어서 체력이 중요하다.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할 것. 둘째, 언제든지 필요한 짐을 최소화하자. 사실 물과 초코과자면 충분, 셋째, 힘든 상황에서도 같이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든든하다는 것.

짧은 일정이었지만 같이 간 Y스랩들과도, 아주 많이 친해졌고, 산드라 간 사님과도 인간적인 경험을 공유했고, 같이 간 대학생들과도 헤어질 때 눈시울이 아련해질만큼 정도 나눌 수 있었다.







글_송진우&이난희, 사진_박은경 단원



우리들의 이모저모



아띠클럽 잠시, 안녕

이번엔 아띠클럽 친구들과 미얀마 민속촌투어를 하게 됐다. 민속촌 가는 길에 내가 하나뿐인 우리의 소중한 핸드폰을 버스에 두고 내리는 바람에, 택시를 타고 20여분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가까스로 버스를 찾아 핸드폰을 되찾게 되었지만, 만약 안타깝게도 되찾지 못했더라면 어땠을까, 새 폰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정말 잠깐 들었다.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무사히 민속촌에 입성했다. 미얀마엔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각각의 민족들의 전통 집들을 볼 수 있는 민속촌이었기에 그곳은 정말이지 넓었다. 때문에 민속촌 관람을 위해선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대여했어야 했는데 오토바이를 고른 건 신의 한 수였다.



다양한 전통집들이 있었지만 사실 내가 볼 땐 모든 집들이 다 비슷해 보였고, 민속촌이라기보단 예쁜 전통집들이 있고 정말 잘 꾸며진 커다란 공원 같다는 느낌이 컸다. 그런 공원 같은 곳을 오토바이를 타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니.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산부족의 전통가옥에서
마치 내 집 같은 안락함을
느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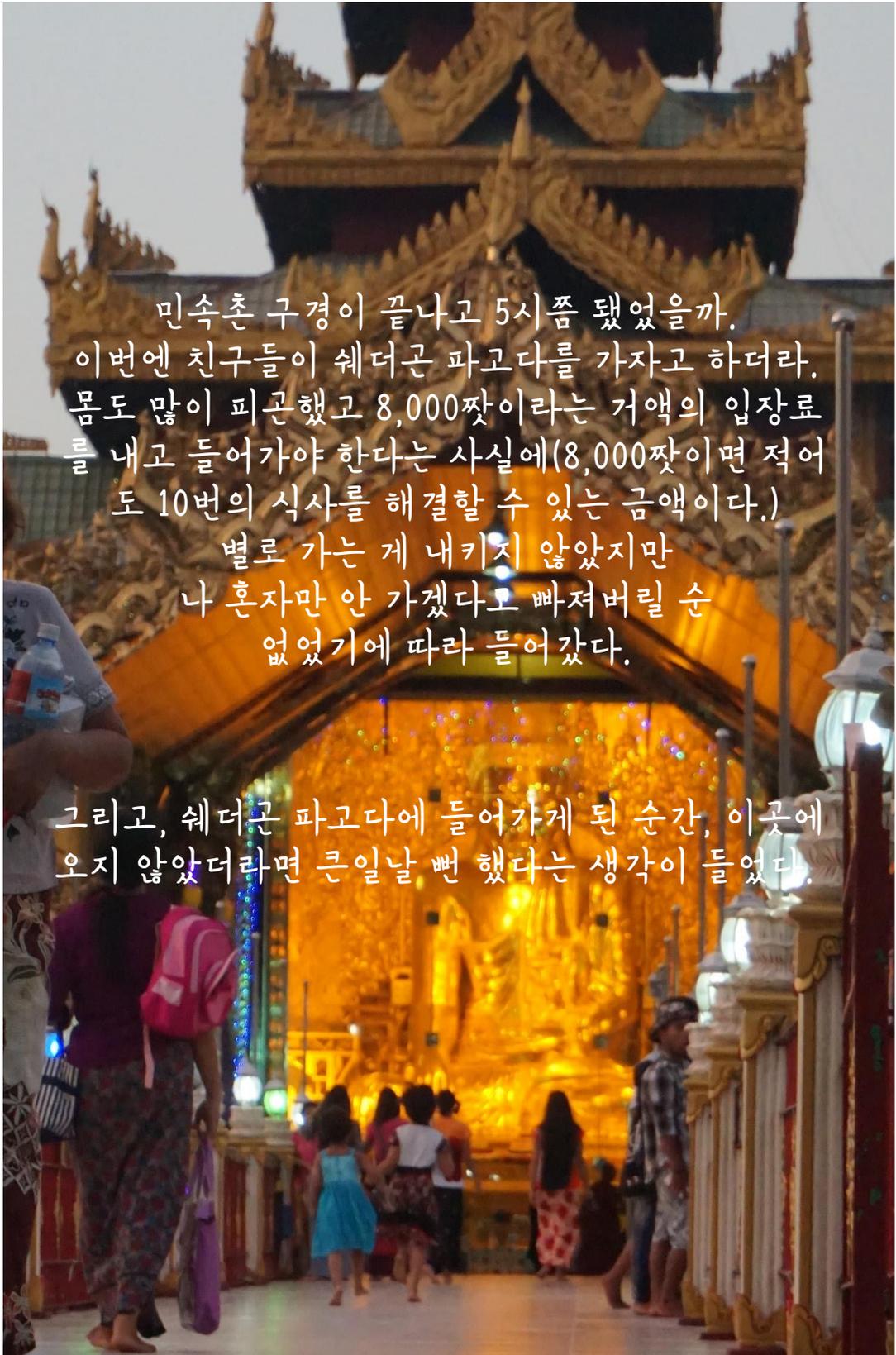


아띠클럽 잠시, 안녕

민속촌 구경이 끝나고 5시쯤 됐을까.
이번엔 친구들이 쉐더곤 파고다를 가자고 하더라.
몸도 많이 피곤했고 8,000짜이라는 거액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에(8,000짜이면 적어도
10번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다.)

별로 가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나 혼자만 안 가겠다고 빠져버릴 순
없었기에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쉐더곤 파고다에 들어가게 된 순간,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큰일날 뻔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띠클럽 잠시, 안녕



거대했다. 거대하고 거대하고 또 거대했다. 마치 서울의 홍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조용히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많았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부러운 사람도 있었다. 이런.

우리는 조용히 그 틈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아띠클럽 친구 뚜뚜의 손금시간이 있었는데 과거에 있던 일부터 현재까지 생각보다 손금이 정말 정확했다. 나는 나보다 못생긴 여자랑 결혼하게 될꺼라던데. 이런.

나오는 길에 뚜뚜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쉐더곤의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그렇게 빼이네빈에 가기 전 우리의 마지막 아띠클럽 모임은 성황리에 잘 끝이 났다.



4.16

진우생일,

그리고 세월호 2주기

같은 촛불, 다른 의미

다행히 케이크는 받았다. 하필 케이크를 사오는 은정리와 난희를 마주쳐 서프라이즈 파티는 안됐지만 그래도 소원을 빌고 후, 하고 바람을 불어 촛불을 끌 케이크를 받아 다행이었다. 점심엔 인스턴트 미역국까지 먹을 수 있었다. 엄마는 아들 생일보다 봄 축제가 우선인지, 봄을 즐기느라 전화를 받지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 이 글을 15기 팀원들이 볼 테니, 생일 축하하단 메시지 고맙다고도 언급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날 저녁, 우리 낮에 피웠던 촛불을 다시 피웠다. 같은 촛불을 피웠지만 의미는 달랐다. 어둠이 내린 밤만큼이나 조금은 무거운 분위기에서 눈을 감고 우리 2년 전 그 때를 떠올렸다. 4월 16일. 그리고 그 이후 빚어진 일들까지도. 잠깐의 명상을 가졌고 우리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고받았다. 가늠할 수 없을 그들의 슬픔을 측정이라도 해볼 요량으로 떠올리고 떠올렸지만 가늠할 수 없는 것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게 분명했다.

2년 전 부산시청 세월호 분향소에 들러 국화 한 송이를 놓고 온 적이 있었다. 그 날 하필 비가 왔고 다녀오면 나아지리라 여겼던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생(生)을 축하하는 날 사(死)를 추모해야 하는, 앞으로도 같은 촛불을 피우지만 다른 의미를 떠올려야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글- 송진우 단원





인레 호수

2016.4.23 산드라 간사님의 큰 아들 결혼식

편잔을 잘 보내고 난 뒤,
우리는 4월 23일 홈스테이
를 떠날 준비와 함께, 우리
담당 간사님이신 산드라 간
사님의 큰 아드님 결혼식을
위해 양곤ymca 직원분들도,
당연히 우리들도 모두 일손
을 돕고자 나섰다.



D day-1 (4.22)

양곤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
기 때문에, 양곤ymca에 있는 거의
모든 의자와 테이블들, 그릇들 등
사용할 모든 자재들을 나르고,
은정과 난희는 특히 500명 분의
그릇들을 다 씻어내느라 Y직원 이
모 두 분과 넷이서 허리가 뻐사지
도록 설거지를 했다고 한다. 남는
건 건강한 몸과 체력뿐.

←주인공인 신랑, 신부님♡
(왼쪽 Saro, 오른쪽 Thaw)



D day ♥ 햇별이 내리쬐는 화창한 날씨에, 우리도 오랜만에, 아
니 처음으로 멀끔하게 차려입고 교회로 출발.
우리 넷뿐만이 아니라 매일 보던 직원 분들, 이모들, 친구들도
'똥야라 완따바레(아이고, 만나서 반가워요), 버둘레(누구세요)'
하면서 서로 예뻐했다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5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두 분의 결혼식은 잘 끝났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글.사진-박은정 단원 



가
리
다
가
리
.



양곤팀 5번째 멤버 영입!



미얀마 양곤 팀의 살아있는 지속가능성!
제5의 멤버 솔리를 소개합니다.

나이 : 23 (미얀마나이로)

취미: 페이스북에 우리들 못생긴 사진
업로드하기, 한국말 하기

특기: 각종 미얀마 요리

별명: 아유(바보), 어엿더마(술꾼)
왓포우(퐁퐁이), 사랑꾼

양곤YMCA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솔리는 미얀마 첫 기수 때부터 활동
이나, 여러 생활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는 친구입니다. 여기
까지가 공식적인 소개이고,,,

실상은 나를 놀리고, 언니 오빠들에게 설렘 없이 장난을 걸고,
옷에 벌레를 붙이기도 하고, 나보고는 머초부(못생겼다.)
본인은 초래(잘생겼다)라고 하루에 열 두번도 더 말하다가
결국에는 몇 대 맞고 항복하는 정말 장난꾸러기입니다.

양곤팀 5번째 멤버 영입!



그렇다가도 때로는 길을 걷다 종종 길거리 음식도 사주면서
미안마 음식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사과를 잘 먹는 우리에게 사과를 사주기도 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도 돼지 비계를 먹지 않는 나에게 살코기만 떼서
내 밥그릇에 무심한 듯 던져주고 자기는 비계를 먹는
친구중의 친구, 상 친구이기도 합니다.



가끔 더위로, 피로로 지치고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무표정을
지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먼저 장난을 걸면서
바보처럼 웃고 때리고 도망가는
솔리 덕분에 힘이 날때가 많습니다.

글.사진- 이난희 단원



성주의 기타교실' 변외편

Self평가

박은정

성주오빠의 평가 덕분인지(때문인지),

쉬는 날도 많아 부쩍 자주한 기타연습
+ 전기도 없는 마을에서 한 달간의 홈스테이에 기타가 더 욕심났다.

= 4.21 은정, 보족시장에서 기타 사다.

(현지가 4만천짜/ 그러나 좋은 기타를 사려고 성주오빠 데리고 가고,
아저씨랑 잘 흥정하기 위해 난희 데리고 가고,
길잡이와 능숙한 소통을 위해 풀리까지 온 식구 다 데리고 가고,
고맙다고 점심 사주고, 사서 그 한 낮에 다시 들고 걸어온 것까지.
계.다.가. 내 첫 기타라는 의미까지 더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4월 self 평가지

장래성	★★★★★★★★
의욕	★★★★★★★★★★
이해력	★★★★★★★★★★
성실성	★★★★★★★★
꾸준함	★★★★★★★★

(연습곡 : 10월의 날씨_10cm, Falling slowly_Once ost, 널 생각해_원모어찬스)

성주의 기타교실' 변외편

Self평가

이난희

악기 하나쯤은 자유자재로 배우고 싶었다. 그런데 이게 왜 일?
성주오빠가 기타를 흔쾌히 가르쳐준다고 해서 마음먹고 기타를 장만했다.
그리고 정말 힘들게 미얀마까지 가지고 왔다. 제 2의 아이유를 꿈꾸며...

누가 그랬는가 음악을 하면 힐링이 된다고,,,
그렇지 않아도 몸에 열이 많은 나인데, 기타를 치면 칠수록 열만 쌓이는 것 같다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왜 안 되는 것일까... 하.
아직은 버퍼링이 많이 생기지만 3달 뒤에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리라
열심히 성주오빠를 괴롭혀가면서..

4월 self 평가지

장래성	★★★★★★★★★★
의욕	★★★★★★★★★★
이해력	★★
성실성	★★★★★★★★★★
꾸준함	★★★★★★★★★★

(연습곡 : Falling slowly_Once ost, I'm in love_나르샤, 뭐라할까_브리즈)

성주의 기타교실' 변외편

Self평가

허성주

와우, 이제 1년 반정도 되가는 내 독학의 시절 중에 가장 많은 발전이 있었던 한 달이 아니었나 싶다. 짹짹. 기타를 더 잘 치게 된 건 전혀 아니지만 새로운 걸 만들어 냈다 무려 8곡이나... 말이 8개지 멜로디와 코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곡은 3개뿐이고 나머진 코드진행뿐이거나 멜로디도 한, 두 소절뿐이지만.

한국에 있을 땐 엄두도 못 냈고 양곤에 있을 때도 잠깐씩 끄적거리다 멈춘 게 다였는데. 이 길은 산속 마을 빼이네빈에서 아침 먹고 기타치고 점심 먹고 기타치고 저녁 먹고 기타치고 자기 전에 또 밤하늘이나 보면서 기타치고. 진짜 계속해서 하다 보니 이래 된 것 같다. 기타 치러 미안마 왔나 싶네.

다른 사람이 들을 땐 별로 일 수 있겠지만 내가 나 좋자고 만드는 건데 뭐 어때. 하물며 전문 작곡가들이 만든 수많은 노래 중에서도, top 100 안에 있는 노래 중에서도 정작 누군가의 마음에 드는 노래는 몇 개 뿐인데. 그래도 어렵긴 어렵네 젠장.

4월 self 평가지

장래성	★★★★★★★★★★
의욕	★★★★★★★★★★
이해력	★★★★★★★★★★
성실성	★★★★★★★★★★
꾸준함	★★★★★★★★★★

(연습곡 : 은 없고 만드는 중)

성주의 기타교실' 변외편

Self평가

송진우

뭐든지 쉽게 질려하는 타입이다. 그런 탓인지 기타도 한 번 잡으면 10분을 채 넘기지 못한다. 재미가 없는 건 아니다. 천천히 한 곡, 한 곡 익혀나갈 때마다 드는 뿌듯함이 좋다. 무엇보다 취미생활이 하나 더 늘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싶다.

4월 self 평가지

장래성	★★★★★
의욕	★★
이해력	★★★★★★★★★★
성실성	★★★★★★
꾸준함	★★★★★★★★

by_은정&난희

개인 에세이

따로 또 같이

'라운아띠 15기 양곤팀'이란 이름 하에 하나로 뭉쳐진 우리 넷, 그러나 세상에 단 한 명도 같은 사람은 없듯이,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색깔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다. 수 많은 차이점들, 라이프스타일부터 작은 취향과 입맛까지. 당연히 각자의 생각들도. 그 안에서 우리는 딱히 해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 서툰 대화들로 소통했다. 내 생각이 옳은 것도, 누구의 생각이 옳은 것도 아니고, 그 기준조차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팀에 속해있던, '팀이라면 이래야지'하고 바랬던 것들조차 내 기준이라는 걸 깨달았다.

·
·
·

[우리 팀원들한테도, 내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든 혹시 내 잘못된 기준을 잣대로 두고 본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기도 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 팀 내에서도, 활동지에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내 인생에서의 모든 만남 속에서도 내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신경 써야지.]

'따로 또 같이'

4월에, 이 말이 자주 떠올랐다. 우리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 같이 살아간다는 것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

다문화 수업에서 '샐러드와 스프'에 비유한 설명을 들은 적 있다. 샐러드와 스프는 오이, 당근, 옥수수, 감자 등 다양한 재료들이 공통으로 들어간다. 스프는 몽땅 넣고 끓여져 나중에 재료 하나, 하나의 맛을 느낄 수도, 그 형태를 알아볼 수도 없지만, 샐러드는 각자의 맛도 모양도 다채롭게 유지한 채 함께 어우러진 것이라고. 우리 팀도, 내 가족도, 15기들도, 어떤 공동체도, 이 사회도, 세상도 공동체 속에서도 개개인의 색깔을 유지하고도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신선한 샐러드 같았으면 좋겠다.

4월을 되돌아보며.

박은정





이곳에서 점점 적응을 하고 있다. 아이진의 트럭을 타고 시원하게 부는 바람을 느끼면서 구불구불한 산길을 가다 보면, 끝없는 하늘이 무척이나 가깝게 보이고, 산들과 산들 주위에 옹기종기 붙어있는 집들, 밖에서 축구를 하며 노는 아이들이 보인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곳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이곳에서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다른 아이들처럼 길 모퉁이 흙 속에서 고구마를 신기할 정도로 잘 찾았을까. 밥을 할 때마다 고전을 거듭하는 불 피우기도 단번에 성공했겠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나에게는) 가파르고 미끄러운 비탈길도 아무렇지 않게 뛰어다녔겠지 하는 다소 허무맹랑한 생각들.

지구는 둥글고, 수 많은 나라가 있고, 그 속에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직도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자고 일어나 뚝 떨어지면 내가 살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어쩔 때는 경이롭다. 그리고 그렇게 신기한 곳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웃고 장난치고 하다 보면 또 전혀 낯설지가 않다. 나와 다른 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기 보다 그냥 나랑 원래부터 이렇게 장난코드가 맞는 사람들,, 너무나 친숙한 사람들 같다. 그래서 종종 솔리에게 너 미얀마 사람 맞아?라고 물어보기도 한다. (그럴 때 마다 솔리는 미얀마 사람 아니고 께인 족이라고 대답하지만) 누군가 내가 경험한 것이 내 세상의 전부라고 그런 비슷한 말을 했던가? 그렇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내 세상의 일부가 되고 있는 중이다.

이난희

4월 에세이

이제 제법 배짱이 좀 붙었다. "왜 왔어?"란 질문에 "나도 몰라."란 말부터 튀어나온다. 물론 계속해서 이유를 찾고 있다는 부수적인 말도 뒤따른다. 그래도 처음과 달리 이런저런 변명들을 늘어놓지 않게 돼서 좋다. 한국의 대학생으로서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는니, 교육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가 교육의 질을 높여주는 활동을 한다는니 하는 허울뿐인 말들 말이다.

"나도 몰라."란 말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래서 뭘 좀 찾았느냐는 말에는 여전히 머뭇거리게 되기 때문. 딱 집어 얘기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미얀마에서 기억에 남게 될 것들, 한국에는 없어 부러운 것들이 몇 가지 생겼다.

첫째론 쉐더곤 파고다. 말로만 들어서는 별로 대단치 않았다. 그저 금으로 이루어진 파고다였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도 금빛으로 환히 빛나는 쉐더곤 파고다는 내 말을 잃게 만들었다. 한동안 멍하니 쳐다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둘째론 '핀잔'이라는 워터 페스티벌. 1년에 한 번 5일 정도를 미친 듯이 물 뿌리며 노는 축제다. 단순히 젊음만 즐기는 게 아니라 미얀마 국민 모두가 거리에 호수를 설치하고 트럭을 타고 다니며 물 뿌리고, 물 맞는 걸 즐기는 국가적인 행사. 한국에도 1년에 한 번쯤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하고 부러웠다.

셋째와 넷째는 차로 10시간을 넘게 달려도 여전히 도로가 펼쳐져 있는 넓은 영토와 그 10시간이란 시간을 거쳐 도착한 인레 호수라는 곳. 밤새 인적도 드문 휴게소를 두세 번 들리며 차만 탔던 경험은 당연히 처음이었고, 카약 같이 작은 보트를 타고 인레 호수란 관광지를 유람했던 여행도 꽤나 괜찮았다.

지금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빼이네빈이란 마을에 들어와 문자 그대로 살아가는 중. 도시라는 문명화된 곳에서 즐기던 삶과는 다방면에서 다른, 이곳에서의 특별한 삶을 배워가고 있다. 앞으로 미얀마에서 보고 느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더 남았을지, 또 이 과정에서 내가 찾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송진우



4월의 나는 참 많이도 밖으로 나돌아 다닌 것 같다. 매일 같이 밤이면 밖에 나가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멍하게 앉아 있곤 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또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다.

삐이네빈에서 마을살이를 하던 어느 4월말이었다. 6시만 조금 넘어도 산속이라 금방 어두워지고 7시가 넘으면 마을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빛이 사라지는 곳이었다. 밤이 일찍 찾아오는 곳 이었고 이른 시간 집에서 나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맑소사. 수백, 수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었다. 한국 어디에서도 양곤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렇게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별들을 보다가, 다시는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보게 되기 힘들 것 같아서 왠지 소원을 빌고 싶어 졌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렇게 다시 눈을 뜬 순간, 내가 본 것은 하얗게 타오르고 있던 별똥별이었다. 내 소원을 들은 것일까. 그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혀 지지 않고 앞으로도 잊혀 지지 않을 것 같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또 하루는 미얀마 친구와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다. 밤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전화였다. 밖에 나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전화하다가 어느덧 밤 12시가 되어 전화를 끊고 자려고 집 문을 열었는데, 철커덕 철커덕. 문이 열리지 않았다. 아뿔싸. 이곳은 양곤이 아니었다. 삐이네 빈 마을사람들은 밤 8~9시면 대부분이 꿈나라로 간다. 내가 밖에 있다는 걸 모르시고 이미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두가 잠이든 것이었다. 하하하.

그치만 당황하지 않았다. 인간은 반드시 답을 찾아 낼 것이기에. 소리를 질러 집안의 사람을 깨워볼까 했지만 마을의 모든 사람이 자고 있기에 그것은 불가능했다. 근처에는 마굿간이 있었고 큰 트럭한대도 있었다. 커다란 나뭇가지들도 많았다. 나에게 빼어난 두뇌가 있었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생각해본 나는 역시나 인간답게 답을 찾아냈다.

그냥 집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자는 것.

내가 언제 이래 보겠어. 산속에서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다니. 그렇게 그날 나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외부와는 단절된 마을에서 밤새도록 수많은 모기의 고백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모기 덕분이었을까. 잠 못 이루고 있던 그날 새벽의 나에게 별똥별이 또다시 찾아왔다.

4월의 나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늘 받기보단 주는 사람이었기에 사랑받는것에 익숙하지 않은 나는 아직은 이유 없는 그들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나는 어떻게 보답해야할지 잘 모르겠다.

“Don't forget me”

라는 한 미얀마친구의 말에.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게 그래서 인 것 같다.

허성주

싸베빌라



제주 띠 바레.